

e-TL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6년도 2학기부터 우리 학교에 e-TL(e-Teaching & Learning)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러닝(e-Learn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 학술교류를 위한 도구적 방안으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닝을 통한 콘텐츠 교류의 요구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전산원에서 실시한 학내 정보화 서비스 사용 실태 모니터링에 의하면 e-TL의 사용률이 이메일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 이러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높은 관심은 이해와 격려, 혹은 감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만의 목소리에도 e-TL의 개선을 위해 귀 기울일 내용이 많으며, 이를 반영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견들 중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본고에서는 현재 사용자 및 예비 사용자를 위해 e-TL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해소해 보고자 한다.

이해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자원부 연구조교수

1. e-TL과 이러닝?

이러닝의 의미를, 가령 사이버대학에서처럼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교수자는 이러닝은 안하지만 화상회의는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자는 이러닝은 안하고 PPT 파일을 자료실에 업로드 하여 강의자료로 활용하는 정

도만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이러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닝을 활용한 수업이란 동영상이나 웹기반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경우는 물론, 화상회의를 통해 동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공유하거나 강의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는 주고받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e-TL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e-TL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e-TL에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를 업로드 하여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한 게시판을 무한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요컨대, VOD(동영상)나 PPT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나 화상회의, e-TL, 사설 커뮤니티 혹은 개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이다.

2.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낮다?

2007년 6월 4일자 「대학신문」 사설은 e-TL에 불만을 가진 사용자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등 사설 온라인 커뮤니티로 돌아가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이러닝 지원부의 조사에 의하면, 종래에 사설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많은 사용자가 e-TL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사설 커뮤니티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e-TL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다. 이러닝 지원부에서는 기존 학내 시스템인 e-class의 자료 이관은 대행하였으나, 사설 커뮤니티의 자료 이관까지는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번거로운 수작업을 거쳐 e-TL로 자료들을 이관하여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를 옮기는 강좌가 상당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e-TL이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사설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나름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사용률 55%?

e-TL 이전 시스템인 e-class의 활용률은 대략 10~12%였으며, e-TL이 처음 도입된 2006년 2학기의 활용률은 36%, 그리고 2007년 5월까지의 활용률은 55%였다. 학기 종료 후 최종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학기 e-TL 활용률은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비슷한 규모의 외국 대학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빠른 증가세를 보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닝 활용을 정책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교수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확산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 학교에 서는 두 학기만에 눈에 띄 만한 확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많이 쓰는 메뉴 외에는 없애는 것이 낫다?

어떤 사용자는 e-TL의 기능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많이 쓰이는 메뉴만을 남기고 그 이외의 메뉴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불필요한 메뉴가 사용자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교수자는 강의 커뮤니티만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교수자는 과제 관리 메뉴를 집중적으로 쓰고, 또 다른 교수자는 평가 기능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기능을 삭제한다면, 이는 전체적인 사용 빈도가 낮은 특정 메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 4천여 강좌에서,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e-TL에서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는 메뉴는 없는데, 이는 내가 잘 쓰지 않는 기능이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e-TL을 잘 활용하는 것이 e-TL의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당에 메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메뉴를 다 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기지 않는 메뉴라고 해서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니듯, e-TL에서도 강좌의 특성과 상황에 필요한 기능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또, 사용하지 않는 메뉴가 매번 눈에 띄는 것이 번거로우면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강좌에서 불필요한 메뉴를 감출 수도 있다.

5. 활용률의 진실과 함의

e-TL의 활용률이 두 학기만에 68%에 이르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교수자의 활용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강좌의 활용 기록을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교수자가 e-TL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강좌에서도 조별 학습이나 토론, 토의 등을 위해 학생들이 e-TL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 차원에서는 이미 온라인 상호 작용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며, 강의를 위한 온라인 공간의 필요성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학생들로부터의 요구를 보더라도 앞으로 오프라인 강의에 이러닝을 도입·활용하는 것이 정보화 사회의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e-TL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 이를 풀어 보려고 했다. 물론 e-TL에는 이 밖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닝 지원부에서는 e-TL이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한 이러닝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우리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본부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은 보다 강화될 것을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해는 물론 질정(敎正)도 포함하여, e-TL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서울대학교 이러닝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